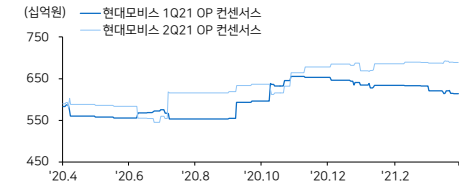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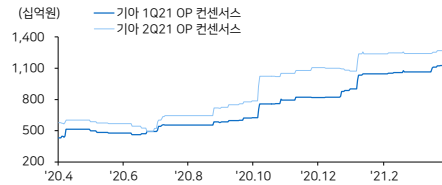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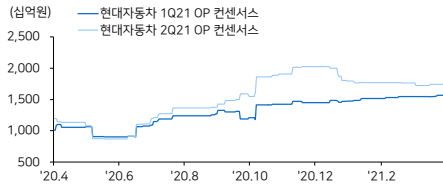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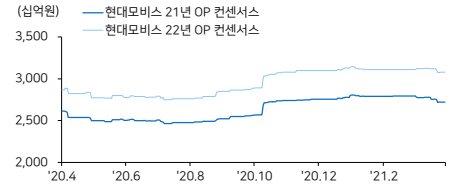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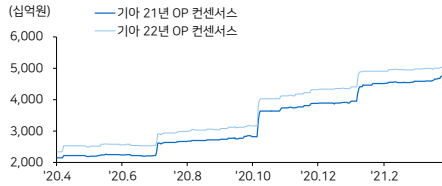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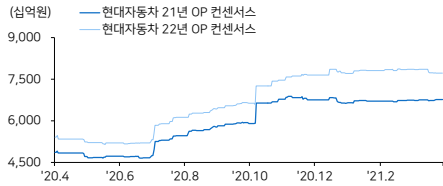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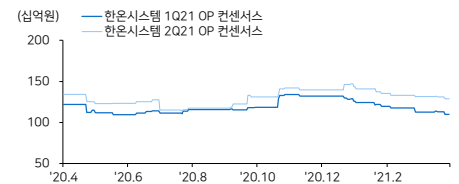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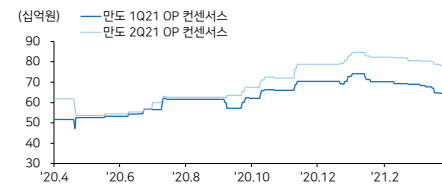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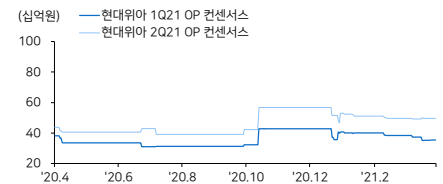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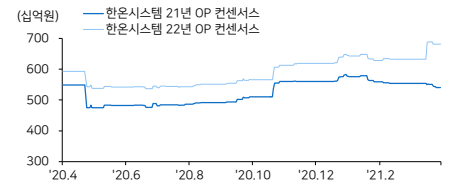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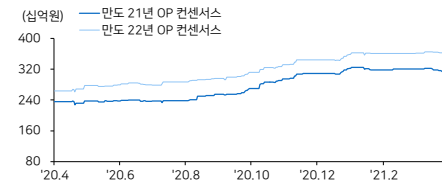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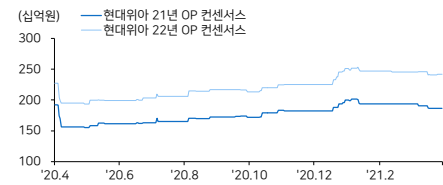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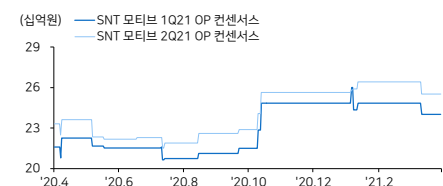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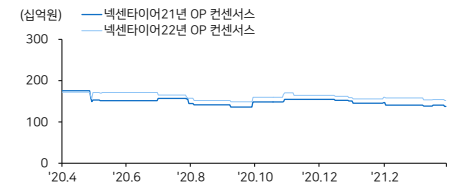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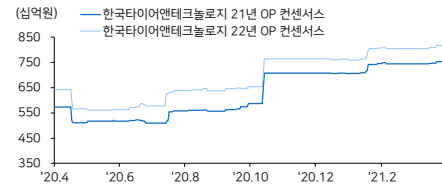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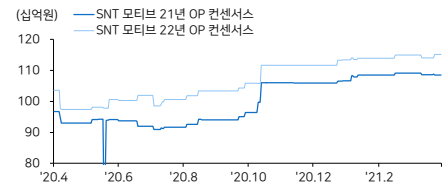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차, 이스라엘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피아에 투자 (THE GURU)

현대차는 자동차 원격제어 플랫폼을 개발한 이스라엘 스타트업 '오토피아'가 진행한 약 100억원 규모 펀딩에 참여함. 이 회사는 원격 운영센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운송 수단을 원격 감시·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해 BMW의 투자를 받음.  
<https://bit.ly/3vjfYID>

### 수소차 시대 성큼...자세히 선정 위한 인프라 조성 집중 (아시아경제)

현대그룹은 지난 20여년간 수소연료전지 개발과 투자로 현재 수소모빌리티 시장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함.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소 인프라 완성 시 현대차의 경쟁력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고 경고함.  
<https://bit.ly/3gBMUlg>

### 폭스바겐, "반도체 부족으로 2분기 생산 비상" (조선비즈)

폭스바겐 산하 SEAT 사장은 "우리는 공급 업체와 폭스바겐 그룹으로부터 2분기에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반도체 공급 현황에 따라 차등 물량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함.  
<https://bit.ly/3nnD031>

### 아우디 '화웨이 자율주행 시스템 쓸 수도' (ZDNET Korea)

아우디의 마이클호프만(Michael Hofmann) 중국 연구개발 집행부총재가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아우디의 자율주행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협력 가능성을 언급함. 앞서 화웨이 측에서도 유럽 자동차 기업과의 협력을 언급한 바 있음.  
<https://bit.ly/3u62xf7>

### 현대차·기아, 아프리카 가나에 조립공장 2곳 설립 (THE GURU)

현대차·기아는 가나 정부와 자동차 조립공장 2곳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생산기지 확보 차원으로 정확한 생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연간 2만대를 웃돌 것이며 내년 말 완공할 것으로 전망됨.  
<https://bit.ly/3xq64Ha>

### 현대차, 구독 서비스 러시아 '자물렘 그랑프리'서 수상 (THE GURU)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량 구독 프로그램 '현대 모빌리티'가 '자물렘 그랑프리'(Za Rulem Grand Prix)에서 혁신상을 받음. 현대차의 러시아 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전환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됨.  
<https://bit.ly/3SRH5cd>

### 판교테크노밸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파이낸셜뉴스)

경기도는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7km 구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시도될 전망이라고 26일 밝힘.  
<https://bit.ly/3xyBH11>

### 포르쉐도 직접 전기차 배터리 만든다 (조선비즈)

독일 포르쉐가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제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포르쉐의 모기업인 폭스바겐의 전통차 전락에 발맞춰 전기차 핵심부품을 내재화하겠다는 전략. 포르쉐의 배터리 설 공장은 독일 튀빙겐 지역에 세워질 계획.  
<https://bit.ly/2R0JoB>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